

조선족 그네에 담겨있는 문화성격과 교육공능에 대한 교육인류학적 연구

최영금

(중앙민족대학 교육학원)

그네는 여로부터 세계 각 민족들이 즐기는 오락과 놀이로서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서방 여러 나라에서 예하면 미국의 디즈니공원이나 학교, 사구(社区)등 곳곳에서 흔히 풍격이 각이한 그네들을 볼수 있다. 중국에서도 그네는 늘 많은 오락 장소에서 빠칠수 없는 하나의 오락 시설이다. 심지어 풍격이 우아한에서 차집이나 대중 음식점에서도 그네로 장식된 식탁과 의자등을 찾아볼수 있다. 물론 부동한 문화권(文化圈)에서 살고 있는 세상각지 여러 민족의 부동한 그네 제조 기술과 오락 규칙은 각 민족의 독특한 그네문화 풍격을 형성하였고 그네 문화 전승에서 부동한 민족의 특유한 문화습속을 엿볼수 있으며 여러 민족의 독특한 문화 특점을 명시하고 있다. 본문은 조선족 그네의 기원과 근원을 살펴보며 교육 인류학적 시야에서 그네가 조선족 사회의 발전과 생존과정에서 그 어떤 독특한 문화적 성격과 교육 기능을 갖고 있고 그에 상응한 구체적인 해결대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조선족 그네의 기원

그네는 조선족 여성들이 아주 즐기는 민속 놀이 이다. 지금은 이미 중국의 민족민속 운동경기 항목의 하나로 되었다. 문헌에서 찾아볼수 있다싶이 그네의 기원에 대하여 여러가지 부동한 론설들이 있다. 그중 첫째로는 13 세기때 조선족 여성들은 사회생산활동에 참가하기 위해 자기집 대문우에다가 바줄을 매여 아이들을 집에서 놀도록 하였는데 그후 점차 체육활동으로 발전 되었다고 한다.¹ 두번째로는 전설에 따르면 옛날 조선 강원도 강릉(江陵)이라는 곳에 있는 한 사람이 여름에 모기한테 물리지 않기 위해 만든 요람인데 이게 바로 오늘 그네의 초기 형태 이다.² 세번째로는 그네는 중국으로부터 진입(传入)되었다는 것이다. 그네는 최초 중국 북방의 소수 민족 산용(山戎)으로부터 받아들인것인데 송나라때 고승의 《사물기원》(事物紀原)에 의한 《고금예술도》(古今藝術圖)에 따르면: “그네란 북방의 산용(山戎)의 놀이다, 경기(以习轻崎者)놀음, 제환공이 발산용시 중원으로 류전되었다.”³ 고 기록되어 있다. 즉 산용(山戎)은 중국 춘추시기 지금 하남성 동쪽에 살았던 소수 민족의 하나인데 유목을 위주로 했다. 그 당시 이 민족가운데서 그네 뛰기가 유행되었는데 주요하게는 사람들의 활기찬 능력과 민첩성을 높히는 한개 무술성질의 활동이었다. 그후 제환공이 산용(山戎)을 정벌할때 그 민족한테서 이 재간을 가져와서여러민족 여성들이 보편적으로 즐기는 대중놀이로 점차 유행되었다고 한다. 하(夏)나라,당(唐)나라 후에 와서는 그네 뛰기가 궁녀들의 오락놀이로 되었다. 문헌에 따르면 당현종(唐玄宗)이 궁녀들이 그네 뛰는 모습을 보고 마침 선녀가 노는것갔다고 감탄했다고 한다.⁴ 조선에서 그네 뛰기에 대해 처음으로 논한 문헌으로는 13 세기초 즉 고려중엽이전 인바 처음으로 《고려사열전》(高麗史列傳)최충현전에는: “단오날 충현은 그네를 세워놓고

¹《민족체육集錦편집조》:《민족체육集錦》인민체육출판사 1985 년..53 페이지

²홍세우: 《조선족민속》,연변인민출판사.1982 년.107 페이지

³채풍명:《유희사》,상해문예출판사 1997 년.72 페이지

⁴윤학수,민영숙《조선족민속운동》료녕인민출판사 1984 년 56 페이지

백정동궁에서 노니 문무사품 삼일연회이여라.”¹ 즉 그곳은 충현왕이 백정동궁에서 그네 뛰기 오락활동을 하니 문무사품이상의 관리들이 큰 잔치를 삼일이나 벌렸다고 한다. 이 기재에서 그 당시 그네 뛰기 활동은 이미 왕궁귀족계층까지 널리 퍼졌다는 점을 알수있다. 그러나 그네 뛰기 활동은 왕궁귀족들로 인해 널리 퍼졌다는 것은 아니다. 기실 그 당시 그네 뛰기, 널뛰기, 씨름등은 이미 일반 서민들이 아주 즐기는 문화오락활동 이었다. 그러나 그때 왕궁 귀족계층이 문화자원을 독점했으므로 일반 서민들속에서 유행된 문화활동은 기록될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당시 왕궁 귀족등 상류사회계층의 봉건류리도덕규범은 여성들이 재빠르고 활발한 신체기능을 갖추는것을 거절했다. 그네 뛰기, 널뛰기, 씨름등은 13 세기초부터 성행되었고 이런 문화활동은 처음부터 서민들이 아주 즐기는 매우 흡인력이 있는 매력적인 놀이였으며 그후 점차 왕궁 귀족등 상류계층으로 스며들게 된것이다. 때문에 인류의 지속과 발전은 문화의 계승과 전파를 절대 떠날수 없는것이다.

조선 이조시기에 와서 그네 뛰기는 서민들가운데서 널리 알려진 대규모적인 경기항목으로 발전되었다. 이와 관련된 기록《성종실록》(成宗实录)에 따르면: “15 세기 서울시민들은 단오절이면 서울한복판인 십자중로 뒤골목에다 그네터를 설치하고 서울시내를 남북계선으로 두개조로 나누어 그네시합을 하였는데 그때마다 서울시내의 여성들이 한대 모여들어 언제든지 인산인해를 이루어 하나의 아름다운 풍경을 꾸미었다”²고 기재되어 있다. 조선 이조시기 유명한 작가이고 음악 이론가인 성현의 시구(詩句) “룡인양 나는듯 그네를 잡더니 반공중에서 어느새 금방울 소리 울리네.”³는 생동하고 형상적으로 조선족 여성들이 그네뛰는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냈으며 또한 이 시구를 통해 15 세기 조선족은 이미 그네 방울을 달아 그네 뛰는 고도를 측량했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예하면 그 당시 조선 평안도 지역에서는 그네 뛰기가 아주 널리 유행되었는데 더욱 매년 단오명절 그네 뛰기가 가장 유명했다고 한다.

문화전파학은"전파는 문화발전의 주요한 요인이기에 문화 채차(采借)는 문화 발명보다 더 많다고 인정한다. 부동한 문화지간의 상사성은 많은 문화권(文化圈)의 호상교류의 결과이다. 이로보아 문화는 서로지간 동일한점이 많을수록 발생된 역사관련의 기회도 더욱 많다."⁴ 문화인류학자 Latzer(拉策尔)은 "한개 민족의 자연 생존 환경으로 부터 착수하여 문화연구 및 지리적인 환경을 상호적으로 관련시켜야 하며 세상에서 고립적으로 행동하는 민족은 하나도 없으며 모두다 그 주위에 살고있는 민족의 여러가지 영향을 받는다..... 또한 민족의 이동은 그 민족으로 하여금 문화면모에서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예하면 구체문화 형태에 영향을 준다.”⁵ 우리 조선족의 그네놀이에서도 확실히 문화전파와 교류의 역사적 근거를 찾아 볼수 있다. 그네의 인연과 유래가 여하하든 조선족 그네는 씨름, 널뛰기등 기타활동과 함께 점차 우리민족특색의 체육활동으로 발전되었고 조선족 여성들이 신체단련에 아주 유효한 운동방법의 하나로도 되었다. 매번 운동회나 명절모임이 있을때면 민족 복장을 곱게 차려입은 우리조선족 여성들이 높이 솟는 큰 나무 밑에서나 혹은 그네옆에 모여서 환호소리속에서 그네놀이를 하는것을 흔히 볼수 있다. 그들은 불시로 하늘로 올랐다가 또 공중에서 밀으로 살며시 내려온다. 긴

¹윤학수,민영숙《조선족민속운동》료녕인민출판사 1984 년 56 페이지

²우와 같음 57 페이지

³우와 같음 57 페이지

⁴황숙편.공패화:《문화인류학리론과연구방법》광둥고등교육출판사 1998 년 60 페이지

⁵우와 같음 61-62 페이지

치마폭은 바람에 날려 마치도 날아가는 선녀의 모습과도 같다. 1982 년에 중국 소수민족 전통 운동대회에서 연변조선족 자치주에서 선발된 그네 선수는 그네뛰기 표현에서 국내외 전문가와 관람자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그들은 그네우에서 내려쳐 하늘로 솟구치는 아름다운 동작을 하는 한편 또 듣기좋은 노래를 불러 조선족 여성들의 아름답고 선량하며 건강하고 근로한 풍모를 아낌없이 제현하였다.

굴러라 했차!
구름을 날자 했차!
천안문을 보자 했차!
금수교를 보겠노라.
가장친한 사람을 찾아 보자
보아라 얼마나 높이 뛰나.....¹

중국에서 지금 평상시에는 조선족 여성들이 그네뛰는 모습을 보기가 드물며 민족 운동회나 민속놀이나 명절놀이 활동때만이 가끔 그네 놀이를 볼수 있다, 그렇지만 그네놀이가 고유한 건강하고 불굴의 민족 정신과 풍부한 문화적 의미만은 조선족의 문화심리를 뚜렷이 나타내며 조선족성원들을 영향주고 적극적향상하며 완강한하게 생존하는 조선족의 민족 성격을 조각하고 민족응집력과 향심력을 형성하고 촉진시켜 준다,

2. 조선족 그네의 문화 성격과 특징

중국에서 조선족만이 그네를 즐기는것이 아니다. 많은 민족들이 그네를 즐기는데 그들의 특유한 지리생존 환경, 사회 발전 경험 및 문화적 배경으로 그네의 구체적인 제조 방법, 오락 규칙 중의 인원배치, 승부 판결의 표준과 노는 방법 등 방면에서 각기 다른 특징을 갖고있다. 또한 각 민족은 여러가지 부동한 그네 양식과 부동한 그네 뛰기 방법을 갖고 있다. 그네는 사회 문화 현상의 하나로서 각 민족의 부동한 문화와 상징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조선족의 특유한 생활 방식 및 민족 문화는 조선족 그네의 독특한 문화 심리추향, 가치관념과 개성 특징을 부여하였다.

(1)그네는 조선족 여성을 상징한다

그네는 오래고도 광범성을 띤 오락항목으로서 각 민족의 문화전파와 계승과정에서 각기 독특한 문화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예하면 러시아의 레튀인(列托人)은 그네를 즐기는데 그들의 그네 놀이의 목적은 곡물 성장에 영향을 주어 풍수의 욕망을 위한 것이며; 중국의 백족(白族)이 춘절기간 그네를 뛰는것은 안전한 새해의 평안과 대길대리(大吉大利)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여기서 그네는 행복, 평화와 건강을 상징하였고; 중국의 묘족(苗族)은 젊은 남녀들이 가을이 되면 8 인그네를 즐기는데 그들은 그네를 통해 서로 사모의 감정을 표시하는데 여기서 그네는 행복한 사랑을 상징하고 있다. 또 중국 광둥 조산(潮汕) 지역의 마을들에서는 지금까지도 그네뛰는 풍속을 700 여년이나 유지하여 왔는데 여기서 그네는 "백가지병을 떨어버리고 평안을 바라는" 행복한 욕망의 상징으로 되고 있다.

조선족 문화 습속가운데서 그네는 조선족 여성를 대표하고 있고 여성들의 굳고 용감하며 진취적인 문화심리특점을 상징하고 있다. 조선족 그네 운동의 참가자는 단 여성이어야 하지만 다른 민족의 그네 활동에는 성별제한이 명백히 제한되어있지 않다. 예하면 중국의 아창족(阿昌族), 까흐르족(柯尔克孜族), 묘족(苗族), 토족(土族), 하니족(哈尼族)등 민족들도 그네를 즐기는데 대부분 성별 제한이 없이 남여가 함께하는 2 인그네, 4 인그네, 6 인그네, 8 인그네등 형식이 있다. 그러나 조선족 그네는 운동경기 규칙에서 유다른 특징을 갖고있다. 일반적으로 1 인단그네와

¹ 《민족체육集锦 편집조》:《민족체육集锦》인민체육출판사 1985 년..54 페이지

2 인쌍그네 두개 종류로 나누는데 쌍그네는 단그네에 비해 높이 날수 없고 운동량도 적기에 흔히 단 그네를 운동경기 항목으로 많이 한다(중국 소수 민족운동경기에서는 두가지 다 있음). 알록달록한 저고리에 팔팔 날리는 곱고 긴 치마를 입은 조선족 여성들이 그네를 굴러 공중으로 날으며 목표를 향해 공격하는 풍모가 바로 우리 조선족 여성들의 굳고 끈질기며 강의하고 선량하며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나아가는 민족 개성과 문화가치 관념을 체현하고 있다.

(2) 발로 방울을 차는 규칙은 진취적인 문화심리를 반영한다

조선족 그네의 승부결정 방법은 유다른 색채를 띠고있다. 최초의 그네놀이 는 그네를 구른후 선수가 발로 그네대에 걸어놓은 나무가지를 차거나 입으로 꽃을 무는것을 목표로 했는데 그후 발전하여 발로 방울을 차는것으로 정해졌다. 즉 높은 곳에 방울을 달아매여놓고 누가 그 방울을 차서 소리를 내게하는가에 의해 승부를 결정한다. 현재 승부 판정의 표준은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발로 방울을 차서 소리를 많이내는 사람이 이기고 두번째로는 뛰는 높이를 재여 승부를 결정하는데 보통 발로 방울을 차는 방법을 많이 채용한다. 시합은 개인과 단체 두가지로 나눈다. 그네기둥의 높이는 일반적으로 10-12 메터이고 두 기둥의 아래거리 사이는 3.5 메터, 옷거리 사이는 2 메터이다. 두갈래 그네줄은 그네기둥우에 가로걸친 나무에 평행되게 매여져 있고 아래말단에 나무판을 끈으로 매여 지상에서 80 센치메터쯤 올라간다. 발판에서 약 130 센치메터쯤 되는곳에 양쪽 그네 끈에다가 안전노끈을 달아 맨다 (목천으로 만듬). 시합을 할때 그네대 정면에다 기둥을 두개 새우고 기둥우에 방울을 단 줄을 쳐놓는다(줄의 높이는 지상에서 10 메터). 방울을 단 줄은 수시로 높이를 조절할수 있다. 선수는 그네 발판에 서서 두손목을 양측에 매여진 안전줄에다 넣어서 줄을 든튼히 조인후 그네뛰기를 시작한다. 처음 시작할때 한사람 (혹은두사람)이 뒤에서 두손으로 발판을 잡고 선수를 앞으로 내밀어주어 공중으로 올려게끔 한다. 이때 선수는 두 다리를 꺾었다뺐다하며 공중으로 오른다. 일정한 고도에 올랐을때 몸이나 혹은 발로서 방울을 차는데 방울을 많이 차는 사람이 이기게 된다. 발로서 방울을 차는것은 조선족 그네의 특징이다. 예하면 아창족(阿昌族)은 물레식 그네를 많이 타며 까흐르족(柯尔克孜族)은 줄타기 그네를 즐기며 토족(土族)은 차바퀴 그네를 즐기고 하니족(哈尼族)은 방아판식 그네를 즐긴다, 물론 그네의 고도를 중시하지만 발로 방울을 차는 독특한 경기 풍격은 조선족의 유다른 문화특점이라 하겠다. 이런 유일한 경기 규칙은 조선족이 항상 힘차게 앞으로 내달리며 적극적으로 자연과 운명과 싸우고 태연하고 용감하게 모든 곤난을 대하는 우수한 심리품질을 상징하고 있다.

(3)그네 제조 방법과 노는 방법은 조선족의 독특한 문화 심미추향을 반영한다.

중국의 여러 민족들이 그네를 만드는 방법은 각기 특색이 있다. 예하면 아창족 그네는 물레 모양인데 두 기둥사이에 나무 굴래를 달아 매여 4 개의 나무기둥이 굴래에 교착되어 우짝이 좌우 연계되어 있는곳에 그네줄을 매여놓았다. 한번에 2 명, 4 명, 지어 8 명까지 앉을수 있다. 뿔대는 마치 차바퀴가 돌아가는것 같다. 발로 땅을 굴러 동력으로 하는데 별맛이 있다. 묘족(苗族)은 땅에다 10 메터 되는 굽은 기둥을 새우고 그우에 각목을 걸쳐놓고 각목에다 구멍을 뚫어서 각목을 박아 넣어서 교착되어 큰 십자가를 이룬 그밑에다 8 개의 그네 판을 달아서 돌리면 마치 큰 물레나 혹은 물방아가 돌아가는것 같다. 하니족(哈尼族)의 방아그네는 약 2 메터되는 굽은 나무통을 땅에다 묻었는데 밑이 굽고 우가 좀 가는데 그우에 등대목을 가로놓고 중간에 구멍을 뚫어 굴대에 박아서 만든것이다. 위그르족(维吾尔族)의 공중굴래--사하을디(沙哈尔地)는 굴래와 나무바퀴와 줄을 연결시켜 만든것인데

굴레를 세워놓고 그 아래다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다 나무 바퀴를 달아놓았다. 나무 바퀴와 바퀴기둥은 바줄에 의하여 연결되었고 나무바퀴 양측에는 두개의 긴 바줄을 매어서 사람이 줄을 잡고 공중에 떠서 돌아가게 만들었다. 놀때는 8 명이 바퀴대를 밀어서 나무바퀴를 돌아가게 하며 이에 의해 바줄을 켜 두 사람이 돌아간다. 사람과 그네가 번가라 돌아가는것이 아주 즐거움이다. 또한 여러민족들의 그네놀이는 다수가 설날에 진행한다. 예하면 백족(白族)은 매년 12월 28일부터 시작하여 일주일간 그네뛰기를 하는데 마을에서 제일 년세많은 노인이 줄딱총과 새납소리속에서 그네를 민다. 설기간 사람들은 모두 번가라 가면서 그네를 뛰는데 이는 일년의 평안을 바라기 위한것이며 나시족(纳西族)은 정월 초하루부터 20일 오후까지 만 20일간 남여로소 활것없이 그네 경기를 한다. 시작하기전에 제일 년세많은 노인이 그네를 타고 실험을 해본다. 이는 온 마을이 무사태평이라는 뜻을 표현한다. 아창족(阿昌族)은 매년 정월초부터 정월보름까지 청년남여는 모두 명절옷을 차려입고 마음껏 그네를 즐긴다. 묘족(苗族)들은 매년 입추날에 “간추절”(赶秋节)을 쉬는데 8인 그네를 뛴다. 위그르족(维吾尔族)은 매년 춘추나 혹은 잔치때 공중굴레(사하을디沙哈尔地)을 하여 청년남여들을 이끈다.

조선족의 그네 제조 방법과 그네뛰는 계절은 유다르다. 민간에서 그네 제작은 흔히 8-9매터 되는 두갈래 바줄근을 큰 나무가지에 매그나 혹은 아예 자기집 큰대문 기둥에다 그네줄을 매고 밑에다 발판을 매어서 만든다. 발판의 넓이는 30-40센티미터고 바줄의 굵이는 손에 쥐기 좋도록 한다. 그네의 높이는 사람의 키와 나이 특성에 따라서 선택한다. 그네대는 든든해야 하며 발판은 두발을 올려놓도록 해야 한다. 그네 줄도 든든해야 하고 그 굴기는 적당해야 하며 그네줄 양쪽에 천으로 만든 줄을 매여 손목을 끼워 줄을 놓지 않도록 하여 안전성을 높인다. 조선족의 그네뛰기는 주로 단오절과 추석에 진행한다. 이전에 그네대는 보통 타작마당에다 세우는데 두개의 기둥사이에 갈목을 매고 거기에 두갈래 바줄을 매고 줄밑에 발판을 고정하여 간단한 그네터를 만든다. 매년 명절때나 농한기절이면 사람들은 늘 탈곡장에서나 혹은 큰 나무밑에다 그네터를 닦는다. 처녀들은 곱은 옷을 차려입고 서로 이길내기를 하며 그네놀이를 한다.

조선족의 이런 독특한 그네 제조방법과 노는 방법은 조선족의 독특한 문화 오락 및 심미심리를 반영했다. 민요는 《청구영어관등가》(靑丘永言觀燈歌)는 조선족의 그네뛰는 환락한 정서를 생동하게 그려 표시하였다.

“5월 5일 단오날
 옆집 총각 나무에 올라
 그네를 높은 가지에 매었네.
 힘써 구르니 앞이 높아지고
 두번째로 구르니 뒤가 높아지네
 흥이나서 그네를 떠도다.
 나의 랑군은 어디에 있는지
 어이하어 그네 뛰러 앓오시나.”¹

조선족 여성들이 그네떨때 차려입은 독특한 옷차림, 발로 차서 울리는 묘한 방울소리, 부동한 제질의 측량도구와 방울소리방식 더욱 여성들이 그네 떨때의 신체적 미감과 조화성, 동작의 음률성, 대자연과 하나로 어울린 아름다운 경상등은 조선족의 독특한 심미 수요를 충분히 명시할뿐만아니라 사람들에게 상심열목(賞心悅目)의 시각 미를 주고 사람들의 심정을 상쾌하고 거뽐하게 한다.

¹ 《민족체육集锦편집조》:《민족체육集锦》인민체육출판사 1985년.53페이지

조선족의 그네는 널뛰기, 줄당기기, 윷놀이, 연뛰우기등 오락활동과 같이 사람들의 심정을 조절하고 인간감정을 증진시키며 널리 친구를 사귄수있는 여러가지 공능을 갖고있다. 또한 이런 문화활동은 조선족성원들로 하여금 자기민족의 문화를 료해하고 깊게 사랑하며 민족의 심미 수요를 만족시키고 심리 적응능력을 제고시키며 단체정신을 양성하는 등 생존 수요를 높인다.

3.조선족 그네의 교육공능

(1) 인식을 촉진하고 동작의 협조성을 제고한다.

성공한 그네 선수는 남을 초과하는 동작협조능력과 공간 감각 능력 및 상대방을 전승하려는 민첩한 관찰력이 있어야 한다. 이는 장기적인 사회적실천과 단련이 수요된다. 심리학 연구가 증명하다싶이 사람들이 어느 한가지 활동의 완성과정이라도 단 한개 감각으로만은 완성할수가 없다. 오직 여러감각 기관의 호상 협조하에서야 만이 순리롭게 전반 과정을 실현할수 있다. 그네뛰기는 목각, 청각, 동작등 기본적인 감각이 있어야 할뿐만아니라 또한 고도의 집중력과 상하지(上下肢)동작의 평형과 력량을 잘조절해야 하는데 특히 사지 운동의 균형과 힘의 강약을 잘 장악해야 한다. 또한 주의와 공간 위치를 잘 관찰하여 공중에 높이 뜬 그 순간 침착하고 정확하게 목표를 향해 진공한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혼란이 생기고 실패를 한다. 동시에 경쟁대상의 정서파동 등 심리상태를 료해해야 만이 지취획승(智取获胜) 할수 있다. 그네 활동은 처음 장악할때 반드시 각 단계 요점을 익숙히 장악해야 한다. 예하면 줄잡기, 흔들기, 공중으로 날기등 각 단계의 몸의 부동한 위치와 힘조절 특히 팔과 다리 힘의 이용 예서의 기교와 기술이 있어야 맹목성을 피면한다. 또한 체력상 너무 일찌기 힘이 빠지는 현상을 피면해야 한다. 동시에 허리, 어깨, 복부등 력량의 조화에도 주의해야 한다. 이과정을 순리롭게 실현하자면 이전에 보고 들은 여러가지 감각과 경험을 결합하여 주의력, 상상력, 판단성, 기지(机智), 령활성, 림기응변등 량호한 사위방식과 품질이 있어야 만이 순리롭게 완성할수가 있다. 때문에 현재 학교 교육에서도 부동한 년급학생들의 신체특점과 접수능력에 따라 알맞는 그네뛰기 과목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정체운동기교, 운동평형감과 공간방위감각 신체각부위의 협조성을 단련시켜야 한다. 그네의 올랐다 내렸다 하는 전신 운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여러가지 감각을 발전시키고 기억력, 사위, 상상등 인식 과정을 촉진시켜야 하며 양호한 신체조화성과 각종 동작기능형성의 토대를 닦아주어야 한다.

(2)민족성격을 조각한다.

문화는 민족의 부동한 성격을 조각한다. 예하면 프랑스 낭만주의, 영국인의 신사풍도, 일본인의 차도,화도와 조심하고 세심한 성격, 조선족들이 고추를 좋아하는 음식문화 특점과 솔직한 민족성격; 몽골족의 말등지 문화와 활발하고 소탈하며 술과손님을 즐기는 민족성격등은 바로 문화가 민족개성을 조각한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민족성격이란 한개 민족 단체의 개성이다. 이는 한 민족의 공동한 문화적 배경과 특정된 사회력사조건하에서 형성된 현실에 대해 온정하고 공동적인 태도와 습관화된 행동 방식이다. 우리가 평상시 말하는 기본인격류형 (basic person-ality type), 민족성(nationalcharacter)및 사회성격(social character)등 개념이 바로 민족성격을 말한다. 그네뛰기는 공중운동으로서 일정한 위험성과 난도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여전히 조선족 여성들이 아주 즐기는 건신오락으로 되어 있다. 이는 바로 그네 문화는 이미 조선족 여성들의 심리과정에 깊이 박혀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민족 개성 심리형성에 영향과 제한을 주며 그네 문화 공동심리 추향을 투사하고 바로 이런 특별한 건신방법을 통해 불요불굴적이고 낙관적이며 향상, 강요하고 진취적이며 적극항쟁(积极抗争)하는 조선족여성들의

민족성격을 뚜렷이 나타낸다.

(3)의지를 단련한다

그네 선수는 건강한 의지력, 일정한 내력과 영원히 불굴복(不屈服)의 완강한 정신이 있어야 한다. 그네 뛰기는 일정한 기교가 필요될뿐만아니라 건강한 의지를 더욱 떠날수 없다. 처음 그네를 배울때 발판에 서거나 혹은 앉아서 두손으로 줄을 쥐고 손심(手心)을 마주하고 두어깨를 자연히 구부리고 손과 가슴의 높이가 같아야 한다. 앞과 우로 그네를 구를때는 무릎을 꿇고 내려앉아야 하고 수직되게 굴렀을때는 두다리로 발판을 굴러 점차 일어서면서 복부를 앞으로 내민다. 위에서 뒤로갈때는 무릎을 쭉크리고 앉으며 수직되었을때 어깨를 뒤로 올리며 점차 두다리를 곳곳이 구르고 두손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힘을 써야 한다. 처음에는 좀 낮은 위치에서 뛰다가 동작이 숙련된후 점차 고도를 증가시킨다. 그네 땄때 두손은 바줄을 꼭 쥐어야 하고 두발은 그네판을 힘껏디터야 하며 두눈은 앞을 바라보면서 중심을 장악하고 힘써 협조해야 한다. 그네 선수가 되려면 여러가지 그네 뛰기 요령을 장악해야 할뿐만 아니라 보통 넘는 인내력과 심리접수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학교체육 과목에서 그네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여러가지 곤란앞에서도 침착하고 냉정히 사고하며 불급불조(不急不躁)하고 팀기응변의 개성을 배양할수 있고 학생들이 용감하고 건강한 의지력을 배양하고 그들의 신체소질을 높힐수 있다고 본다.

4. 도덕수양을 양성한다.

문화는 단체와 개체 발전의 협조성을 특징으로 민족정수를 조각하며 민족개성을 완성화 하여 도덕형성의 태아를 문화속에 깊이 뿌리박았다. 부동한 민족은 그 독특한 문화내함과 특징으로 민족의 생존과 발전과정에 독특한 도덕규범과 도덕이념을 갖고 있다. 그네는 공중운동으로서 어렵고도 일정한 위험성이 있다. 그러므로 용감성과 굳센 의지가 있어야 하고 조금해 말고 특히 급히 성공하려 하지 말아야 하며 응당히 공평속에서 성공적 쾌감을 느끼고 지능을 충분히 방출(释放)해야 한다. 그네 활동은 일정한 정도에서 사람들의 신체기능을 단련시키고 인간의 심리를 도예(陶冶)하며 도덕형성을 위해 기초를 닦아준다. 그리고 도덕과 문화는 전승과정중에서 서로 갈라놓을수 없이 교착되어 있어 사회발전에서의 중대한 동력과 내구력이기도 하다. 예하면 백족(白族), 나시족(纳西族)들의 그네뛰기 이식(仪式)에서는 마을에서 년세가 제일 많은 노인이 그네를 처음으로 밀어서 그네 뛰기를 시작하며 묘족(苗族)은 추공(秋公)과 추과(秋婆)를 선거하여 그네뛰기 노래를 부른다. 이런 습성은 모두 여러 민족들이 노인을 존경하고 숭배함을 알수 있고 건강과 길상(吉祥)을 행복한 생활로 여기는 가치관념과 문화 추향을 알수 있다. 또한 조선족 그네의 여성들만이 경기계 참가할수 있는 규칙은 그 초기 전과 래원과 원인에서 벗어나 조선족 여성들이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고생과 맞서며 생명에 대한 더 높은 열정과 희망을 가진 문화 특징을 반영했고 또한 노인들을 효성하고 집안일을 맡아 하며 가정을 위해 일체를 바치는 관념과 생존래왕의 가치관념과 심리품질을 반영했다.

4. 조선족 그네의 다원문화가치와 교육 책략

조선족 그네의 문화상징은 다원화방향으로 발전한다. 이는 한 민족 문화 발전과 존속에 필요한 생명력이다. 조선족 그네문화 역시 시대발전예 적합되어야 만이 그 생존의 토양을 찾을수 있다.

첫째로, 그네는 많은 긍정적인 심리품질을 포함하고 있다. 예하면 조화로운 감정, 건강하고 고아한 흥취와 애호, 끝까지 견지해나가는 의력, 곤난을 극복하고 참답게 생존하는 능력 등 양호한 개성품질은 그네활동과 많은 연계를 갖고있다. 조선족의

그네는 민족단체 응집력과 민족친합력을 뚜렷이 나타내고 민족개성 방면에서 문화의 동질성을 더욱 견고히 한다. 예하면 학전(學前)교육단계에서 아동들은 그네뛰기 유희를 통해 간단한 인간래왕의 도리를 배우게 되고 모순을 해결하고 경쟁을 알게 되었으며 이런 여러가지 단련을 통해 사회화에 필요한 생존 능력을 배우게 되었다. 학교에서는 그네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견강한 의지력, 조화로운 인간관계, 민족 문화에 대한 깊은 흥취를 격발시키고 배양할수 있다. 때문에 만약 그네 활동을 적극적으로 개발 이용한다면 학생들의 민족문화에 대한 흥취, 의지력, 감정등 개성심리 양성에 독특한 교육 기능과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본다.

두번째로, 그네는 조선족의 건강하고 명량하며 근면한 문화적 품질을 상징하고 있다. 그네는 크게 장소제한을 받지 않기때문에 편리하고 보급하기가 유리하다. 안전성을 첫째로 놓는 그네는 더욱 광범한 오락성과 보편성을 갖게되어 진정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놓고 즐길수 있는 대중 오락 운동으로 되게끔 한다. 때문에 학교 체육 과목에서 그네의 고도와 규칙에 대하여 적당히 성능을 개변하여 그네가 더욱 오락성, 흡인력과 신기성이 있도록 해야 한다. 예하면 학생들의 신심발전규율과 특성에 따라 그네의 높이와 앞뒤로 구르는 폭도를 제정해야 한다. 학교 체육 과목에서 그네 방울을 차는 고도, 난도, 차수등 경기규칙 표준을 알맞게 규정하여 학생들의 그네로 뛰기에 대한 흥취를 격발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 처음은 낮은 위치에서 연습하다가 동작이 숙련되고 익숙하며 요령을 장악한후에는 점차 고도를 증가시킨다. 동작은 쉬운것부터 시작하여 점차 어려운데로 질서있게 그리고 실제에 맞게 가르치되 절대 한일자로 똑같이 요구하는 방법을 써서는 않된다. 동시에 학교 교육, 가정교육, 사회교육시간 서로 잘 배합하여 그네 전승(傳承)의 범위와 속도를 높여야 하며 그네 활동이 더욱더 보편성과 광범성이 있도록 해야 한다.

세째로, 그네 활동은 예술적인 감상가치를 갖고 있다.

푸른 하늘, 진한 녹색 잔디밭에, 절묘한 노래 소리, 기쁨의 환호소리, 딸랑딸랑 방울소리, 그네선수들과 주위관중들의 알락달락한 고운 복장차림, 앞뒤로 내려오르는 그네끈의 아름다운 색채, 그네 선수들의 힘의 강약을 합리하게 배치하는 조화로운 그 동작, 호흡, 기술, 각도, 공중에서의 묘한 동작과 아름다운 그 모습, 그리고 주위 자연과 어울려 이루어진 그 독특한 미는 마치 한폭의 아름다운 그림과 같아 사람들에게 그네에 대한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주고 더없는 공간상상력을 키워주며 예술적인 풍광과 감상능력을 형성시킨다.

조선족 그네의 잠재력은 아주 크다고 본다. 그 독특한 문화 성격과 현실적인 교육가치와 공능도 과재연구의 심도발전에 따라 더욱 깊이 알려지리라고 믿는다. 조선족 그네의 이모저모를 통해 그네가 우리 조선민족의 사화화 발전에서 나아가서 후대들의 생존과정과 문화 선택에서 얼마간의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1. 천수산, 김중국:《중국조선족풍속》료녕민족출판사 1996 년(중문)
2. 손옥란, 허옥량《민족심리학》지식출판사 1990 년(중문)
3. 민족체육集錦편집조:《민족체육集錦》인민체육출판사 1985 년(중문)
4. 민족지식手冊편집조: 《민족지식手冊》민족출판사 1988 년(중문)
5. 왕금보, 팽사원:《민족전통체육및건신방법》출판사 1996 년(중문)
6. 윤학수, 민영숙《조선족민속운동》료녕인민출판사 1984 년(한문)
7. 연변조선족민속학회, 조선족민속연구소편역:《조선족민속연구》(제 1 권) 연변대학출판사 1991 년(한문)
8. 연변조선족민속학회, 조선족민속연구소편역:《조선족민속연구》(제 2 권)

연반대학출판사 1996 년(한문)

9. 왕군:《문화전승과교육선택》민족출판사 2002 년(중문)
10. 하경웅, 통싱:《민족교육학통론》,교육과학출판사 2001 년(중문)
11. 채풍명:《유회사》,상해문예출판사 1997 년(중문)
12. 홍세우: 《조선족민속》,연변인민출판사 1982 년(한문)
13. 황숙핀.궁패화:《문화인류학리론과연구방법》광둥고등교육출판사 1998 년(중문)

저자략력 :

최영금 1968 년 흑룡강성 연수에서 출생. 현재 중앙민족대학 교육학원 중국 중앙민족대학 교육학원 박사 재학중. 할빈사범대학 부교수, 주로 심리학, 교육학, 민족심리.민족교육, 문화전승과 교육관계등을 연구함.